

오순절 후 열한번째 주일 / 창립 43주년 기념 주일
THE WORSHIP SERVICE OF 11TH SUNDAY AFTER PENTECOST

주후 2021년 8월 8일 오전 10시

인도: 김일선 목사

*입례 찬양 Opening Hymn	“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”	다같이
*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		인도자
*찬 송 Hymn	246 장 “내 주의 나라와” (새 208)	다같이
*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	32 번 시편(Psalm) 143 편	다같이
*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		다같이
*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		인도자
*송 영 Gloria Patri	555 장 “세번 아멘”	다같이
*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		다같이
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		이성우 장로
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	야고보서 (James) 3:13-18	이수진 집사
찬 양 Anthem	“의지하고 순종하면”	찬양대
설 교 Sermon	“신앙을 삶으로 (7) – 위로부터의 지혜” (Living out Your Faith – Wisdom from Heaven)	김일선 목사
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		다같이
찬 송 Hymn	285 장 “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나” (새 228) 1, 2 절	다같이
주의 만찬 Communion	(흠어져 나누는 주의 만찬)	다같이
찬 송 Hymn	285 장 “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나” (새 228) 3, 4 절	다같이
봉 헌 Offerings		다같이
*송 영 Doxology	353 장 “내 주 예수 주신 은혜” (새 317) 1 절	다같이
*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		다같이
교회 소식 Announcements		인도자
*찬 송 Hymn	242 장 “교회의 참된 터는” (새 600)	다같이
*축 도 Benediction		김일선 목사

*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stand if you are able.

고백의 기도

(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,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)

다같이: **거룩하신 하나님,**

“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

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만,

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.

우리의 죄악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었던 죄(Sin of Commission)와

우리의 불순종으로 지었던 죄(Sin of Omission)를,

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오니,

“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,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.”

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,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.

그리하여, 이제부터는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로 분별하며,

이 땅에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

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.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(*벧전 29)

오/늘/의/ 성/경/말/씀 TODAY'S SCRIPTURE

“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
공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,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
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.” (한글개역 **약3:17-18**)

“But the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 is first of all pure; then
peace-loving, considerate, submissive, full of mercy and good fruit,
impartial and sincere. Peacemakers who sow in peace raise a
harvest of righteousness.” (NIV **James 3:17-18**)

매/일/성/경/읽/기 DAILY BIBLE READINGS

날짜	8/8 (주일)	8/9 (월)	8/10 (화)	8/11 (수)	8/12 (목)	8/13 (금)	8/14 (토)
	룻1	룻2	룻3,4	삼상1	삼상2	삼상3	삼상4
본문	행26	행27	행28	롬1	롬2	롬3	롬4
	렘36,37	렘38	렘39	렘40	렘41	렘42	렘43
	막9	시10	시11,12	시13,14	시15,16	시17	시18

수/요/ 성/경/공/부

토/요/ 새/벽/기/도/회

수요 성경공부 (8/11수 오후7:30)	“넘치게 하려 하심이라” (고후9:6-15)
토요 새벽기도회(8/14토 오전6:30)	“하나님을 찬양하라” (시47:1-9)

지난 주일(8/1) 말씀 (손순 목사)

“하나님을 기쁘시게”(히 11:5-6)

오늘 본문에는 “하나님을 기쁘시게”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. 먼저는
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하고,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
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. 즉, 본문은 우리에게 “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
인 내용”을 전해주는데, 1)첫째는,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
고(히11:5, 창5:18-22) 2)둘째는,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하
나님을 기쁘시게 하며(히11:6상), (마지막) 3)셋째는,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
심을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(히11:6하)는 사실입니다. 이처럼
하나님과 동행(반려)하다 보면,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, (마지
막으로)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 보면,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
수 있는 것입니다. 이와 관련하여, 톨스토이는 “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
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. 하나님을 구하라.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
앞에 나타나시리라”고 했습니다. (마치)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
(시42:1),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하겠습니다. 그리하면, “너희가 전심으
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”(렘29:13) 그리고 “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
라”(마7:8)는 약속의 말씀처럼, 우리는 더 높은 믿음으로 단계로 성장하게 될 것
입니다. 그리고, 이처럼 “하나님을 기쁘시게” 하는 사람은 에녹이 그러했던 것
처럼,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. 주님 다시 오
시는 그 날까지,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,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부지런히 심어
서, 귀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

설/교/ 메/모